

오피니언 리더



정성천 (주)한국경제교육발전연구소 원장교회장

잔디밭
 잡초 없이 깨끗이 잔디를 깔고 매끄럽게 깎아놓으면 달려보고 싶고, 넓고 싶어진다. 잡초 없는 깔끔한 잔디밭을 유지하려면 정성을 쏟아야 한다. 조금만 방치하면 잡초가 잔디밭을 점령한다. 잡초가 잔디밭을 점령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마치 사람의 그것과 닮아 있다.

금창초
 금창초는 땅 표면에 바짝 붙어 옆으로 퍼지면서 자란다. 잔디밭의 금창초는 잔디 밑으로 퍼져 숨겨지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손바닥 반만큼 퍼졌을 때가지는 잔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잔디 밑에서 예쁜 꽃도 피워주니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지 않는다. 금창초가 손바닥 넓이 정도로 퍼지면 잔디를 죽인다. 점령한 금창초를 제거하면 잔디는 없고 빈 흙만 남는다. 금창초는

자라 잔디를 내려다본다. 숨은 전략으로 점령해왔던 잔디는 수많은 씨앗을 퍼뜨려 점령하겠다는 노골적인 전략을 보인다. 잡초는 보이는 족족 뽑아내야지 방치하면 수많은 씨앗을 퍼뜨려 이름에 걸맞게 잔디밭을 망친다.

민들레
 민들레는 잔디 밑에서 땅 표면에서 바짝 붙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 성장해서도 위로 자라지 않고, 예쁜 꽃을 피워 잔디밭이 있어도 관습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은 어린 시기에 벌써 여러 송이의 꽃을 만들고, 한 송이에서 단 시일에 수많은 씨앗이 퍼지므로 몇 그루만으로도 잔디밭을 쉽게 점령한다. 민들레는 몇 그루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넓게 퍼지므로 아주 어린 개체일 때 제거하여야 하며, 뿌리가 굵고 길더라도 끝까지 뽑아내야 점령을 피할 수 있다.

잔디밭의 점령

눈에 보인 순간 제거해야지 낫고, 작고, 꽃이 예쁘다고 그대로 두면 잔디는 점령당한다.

숙
 숙 씨앗이 잔디밭에서 발아하면 잔디사이로 작은 순이 올라온다. 올라온 순은 잔디와 바로 구분되고, 덩기면 쉽게 뽑히므로 제거하기 좋다. 숙은 쉽게 뽑힌 반면에 뽑힐 때 뿌리가 끊겨 땅 속에 일부가 남는다. 땅속에 남은 뿌리는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많은 새 순을 만들어 잔디 사이로 나온다. 뽑는 과정이 반복되면 숙 뿌리는 잔디 밑을 온통 점령한다. 숙은 땅 속에서 옆으로 뻗은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지, 눈에 바로 띄고, 쉽게 뽑힌다고 만만히 보다가는 잔디밭은 금방 점령당한다.

가짜잔디
 잔디와 비슷하게 생긴 가짜잔디가 있다. 특히, 어린 가짜잔디는 잔디와 아주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 반면에 성장한 가짜잔디는 잔디와 구별된다. 잔디밭에서 퍼져 있는 가짜잔디가 바로 보인다. 이미 잔디와 1미터 이상 얽혀 퍼진 상태일 것이다. 퍼진 가짜잔디를 모두 제거하면 잔디밭이 영성하게 된다. 가짜잔디는 초기에 구분하기 어려워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뽑아내야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면서 넓게 점령당한 후에는 그 점령지를 빼앗기가 쉽지 않다.

망초
 망초는 아주 작은 순으로 돌아나지만 어느 순간 뽑을 때면 뽑아보라 라는 듯 위로 솟속

토끼풀
 토끼풀은 땅 흙에 바짝 붙은 작은 순으로 돌아나 상태에서 잔디 사이로 가늘고 긴 줄기를 뻗는다. 줄기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순식간에 잔디를 점령한다. 잔디밭을 걷다가 눈에 보인다면, 이미 토끼풀이 주변으로 퍼져 잔디를 점령한 후일 것으로 제거는 쉽지 않다. 토끼풀은 땅에 발아된 시점에 제거해야지 옆으로 뻗어 점령당하면 제거가 곤란하다.

점령지는 누구일까?
 사투개인은 물려받은 풍족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결정권에 따라 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사후 세계가 없어야 현재의 풍요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반면, 바리새인은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풍위가 유지되므로, 사후 세계가 있어야 죽는 시점까지 노력할 이유가 생긴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한다면, 사투개인과 바리새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종교인들은 자신의 사고 틀로 사후를 규정하고 예수님을 점령하려 한다. 풍족한 삶을 누리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는 사투개인과 같은 사고를 하지 않을까? 이 풍족한 세상을 마음껏 누리려면 행위를 묻는 사후 세계가 없어야 하는데, 사후, 그것도 책임을 묻는 사후가 있다면 이는 점령하고 싶은 대상이 아닐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자랑의 무의식은 어떤 점령방식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을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한류 K-푸드 열풍을 위해서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켜야!

단술(甘酒)은 첫 번째 당화단계에서 식혜를 만들 때 쓰는 엿기름보다 당화지수(sugar power)가 더 큰 쌀누룩을 사용하여 엿당, 포도당 등을 만들기에 식혜보다 단맛이 강하다. 또한 단술 제조의 두 번째 발효단계에서 보통 도수가 1~5% 미만의 낮은 함량의 알코올을 만든다. 누룩균은 전분을 당류로 분해하기도 하지만, 영양적으로 유익한 또 다른 역할도 한다. 쌀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으로 만들기에 또 다른 풍부한 영양소를 단술(감주)에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누룩 곰팡이(국균(麹菌))에서 황국균, 백국균, 흑국균이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황국균(黃麹菌; Yellow Koji mold)은 곡류의 녹말을 포도당으로 당화시키고 나아가 알코올 발효까지 일꾼이다. 또한 콩이나 쌀에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효소분해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류의 황국균(黃麹菌)을 이용하여 콩으로 만든 메주를 발효시켜 된장 등 장류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단일균의 국균(麹菌)을 이용하여 미소(miso), 낫토, 사케, 가스오부시 등 많은 일본 전통식품을 만든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빗짐에 있는 곰팡이 가운데 여러 종의 고초균(枯草菌; Bacillus subtilis)들을 이용하여 전통식품인 참국장을 만들지만, 일본에서는 고초균의 한 종류인 낫토균(Bacillus subtilis var. natto)으로 낫토를 만든다.

우리나라 참국장과 일본의 낫토는 매우 비슷한 발효식품이지만 곰팡이 균, 만드는 방법, 사용하는 콩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동일하지 않다. 여러 곰팡이 균들을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식품과 달리, 일본의 발효식품은 단일균을 종균(種菌)으로 사용하도록 개량시켜 일본 고유한 맛을 발전시켜 왔다. 2006년 일본 발효학회 그리고 일본양조학회에서는 국균(麹菌; 누룩 곰팡이)을 자기네 일본국가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균(麹菌)을 국균(國菌; National fungus, 국가 곰팡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였다.

일본내 누룩 곰팡이를 이용한 식품산업은 자동차산업과 맞먹을 정도라는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누룩에는 다양한 균이 혼합되어 있어 장류를 만드는 지역에 따라 깊고 독특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지역이나 날씨, 기온 등에 따라 주변균으로 곰팡이 종류가 일정하지 않아 동일한 맛을 내지 못해 상업적으로 규격화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개량된장, 개량간장(일본식 간장, 왜간장이라 부름)은 일본식품과 같이 단일균으로 발효시켜 균일한 맛을 내도록 해야만 한다. 사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있다. 전통적으로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재래식 장류와 달리, 시판되는 개량된장이나 개량간장의 경우, 우리나라 발효식품이라 말하면서도 전통누룩을 사용하지 못하고 황국균의 일본 단일균을 모두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균일한 맛과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전통 균주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맛과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고 K-푸드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기 위해, 미생물자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의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 겸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100



장찬익 선교사
 이일세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합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 전쟁 이대로 끝나면 안된다!
 “지금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안된다”라고 이란의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이대로 협정을 맺어서 전쟁이 끝나버리면 또 다시 이슬람의 신정체제가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끝난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라고 이란의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지금 이란의 국민 9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의 신정체제에서는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자유!
 세상의 어떤 해설가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무리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기름, 원유문제라고

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지금 이란의 국민 9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의 신정체제에서는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자유!
 세상의 어떤 해설가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무리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기름, 원유문제라고

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지금 이란의 국민 9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의 신정체제에서는 인간의 인권과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자유!
 세상의 어떤 해설가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 무리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기름, 원유문제라고

“이란-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안된다”-1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호무즈 해협을 또 어떤 이는 세계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란에서는 이란의 이슬람 혁

명수비대가 사위하는 사람들을 또 다시 잡아가고 확대하고 속칭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슬람의 신정정치를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핵 무리 문제 때문도 아니고, 기름이 없어서 처형당한 것도 아니고 호무즈 해협 때문에 아니고 세상의 패권 때문도 아닙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들의 신정정치의 권력을 놓치지 않고

는 것을 보여 준 것입니다. 알라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공개 처형 된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전국민들의 마음에 심어 두어서 이슬람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공포와 두려움에 묶어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핵 무리 없애져도 기름 문제가 해결되어도 호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도 세상의 패권이 미국으로 건너가도 상관없이 이란을 이슬람의 포로로 잡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 자유입니다.

• 이란의 전쟁은 이슬람의 정체를 보인 전쟁이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믿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고 안내해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창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시역)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 원서접수: 수시접수(062-266-0153)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c.or.kr)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오전10시, 야간:오후6시)
- 주말반: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별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교회 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토요일 수시등록 접수중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신학교육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